

벼랑 끝에서 맞는 봄

이 진(목사, 태안 남면교회)

“이런, 도둑놈의 교회! 에이~ 텃!”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이삿짐을 풀다말고 열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낫술로 뒷목덜미까지 벌게진 한 노인이었는데 벌써 저 만큼 가고 있었다. 대도시에서 들어온 나의 농촌목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 어느 날, 인근 중학교의 특별활동 교사로 위촉받아 교회 악기로 밴드 동아리를 연습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온 중년 남자가 샷대질을 하며 또 그랬다. “에이, 쌍! 이거 다 너들 잘 먹고 살려는 짓 아녀!” 그는 교회당 현관문을 몇 번 더 발로 차고서야 돌아갔다.

교우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나도 일단 함구하고 이듬해를 맞았다. 늦은 봄 이웃 마을의 이장을 면사무소 앞에서 만났다. 나를 보더니 다짜고 짜 분통을 터뜨리며 점퍼 속에서 신문지로 감싼 것을 꺼내 보였다. 부엌칼이었다. “이놈을 만나기만 하면! 내 가만 안 둘 거여!” 험한 말이 마구 튀어나왔다. 심증이 가는 일이 있어 알아보았다. 그 주인공은 매 주일 가장 먼저 교회당에 와서 예배가 끝나도록 강단을 차지하고 소위 그 대표기도라는 것을 거룩한 목소리로 길게 하는 자칭 ‘항~존직남’이었다.

그가 대표기도를 할 때마다 예배 분위기는 숨 막히도록 가라앉았고 교인들은 아멘!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 지주의 아들로 물려받은 재산과 토지를 다 날리고는 그렇게 날아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소송의 달인이었다. 그는 새벽기도회도 개근하였다.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강단에 내가 혼자 남는 시간이 되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며 오래오래 웅변을 토했다. 억울하다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 장로나고,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마무리를 하는데 참 고마운 내용 같지만 묘하게 속을 긁어대는 기도를 거의 날마다 외쳐댔다.

결국 이웃 타 교단 소속 교회의 너른 땅을 그 교회 교인 한 사람과 찢고 이리저리 나누어 팔아먹고는 유죄 판결을 받고 콩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후에도 기막힌 일들이 연속되었다. 지난 14년의 농촌생활, 나의 에너지는 그렇게 소진되었고 다만 “교회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내 손으로 폐쇄시키거나!”하는 마음으로 버텼다.

이제는 기적 같이 평화가 찾아왔다. 요즘은 동네 이발소에 가면 마을 아저씨들이 말을 건다. “목사님! 저 이가 23번이유.” “아녀, 나는 32번이지.” 이장이었던 분이 1번이었고 무려 52명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분쟁은 물론 오히려 자신이 무슨 명예훼손에 모욕에 또 온갖 일을 당했다고 소송을 냈던 것이다. 그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터무니없는 소요 경비를 주민들에게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또 냈었다. 10명의 목회자가 그에게 쫓겨나갔고 교인들은 그 와중에 서로에 대한 반목과 상처들로 목회자를 결코 신뢰하지 못하는 웅고집들이 되었다.

매년 축호전도, 경로잔치, 의료봉사, 농촌 봉사, 공부방, 노인한글교실, 컴퓨터배움터, 제자훈련, 전도 훈련, 찬양 기도회, 성경공부 등, 무슨 일에도 주체적 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걱정하고 있는 교우들을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급격한 노령화가 눈에 띈다. 서해 수평선으로 지는 일몰이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그렇게 사그라지는 고령화된 농촌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발농사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가난한 면소재지는

내년이면 개통된다는 우회도로로 인해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다. 교회는 물론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은 저 먼 산골짜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벼랑 끝에 선 나는 30여 년의 전통적인 목회를 스스로 명퇴하고 목사 옷을 벗어던지는 역발상을 실천해보려고 한다. “아예 마을 주민으로 살자. 사그라지는 교회 울타리를 마을로 넓혀 보자.” 이번 겨우내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그렇게 ‘마을을 목회하는 목사’로 사라지려고, 아니 그렇게 목사로 살아남아 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 덩그러니 높은 교회 첨탑은 남의 속도 모르고 벌써 새봄을 부르고 있다. 임대해 놓은 2천여 평의 밭이 저 건너에서 부르고 있다.

마을을 교회로

한 페이스 북 친구가 놀라운 기사를 보내왔다. 슈브함 바네르제라는 인도계 미국인 중학생 창업가의 이야기였다. 그는 점자 프린터가 너무 비싸 가난한 맹인들이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레고 블럭으로 개발, 설계도를 공개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원 받아 작은 벤처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를 눈여겨 본 인텔사가 수십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점자 프린터 가격을 불과 40여만 원, 일반제품의 무려 1/4에 불과한 획기적인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삶을 돕는 기술은 가난한 사람들의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그의 뚜렷한 소신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지난 2012년 이후 일고 있는 협동조합의 바람을 타고 우리교회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거듭나 보자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매주 반복하여 설득했는데 금년 들어 교우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우선 협동농장을 위해 약 2천 평의 밭을 임대하였다. 협동농장이라고 해야 교우들 대부분이 고령이라 자신들의 농사일도 감당키 버거운 현실이니 그게 전부 내 일이 될 것이다. 지난 겨울내 나는 이것이 내 소명이라고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다짐했다. 이제 와서 농사지으며 사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주변의 다른 지역들처럼 밭 임대료를 평당 연 1천 원으로 밭주인들과 구두 계약을 한 것 때문이었다. 지난 주간에 마을 주민 몇 분이 와서 목소리를 높였다. “목사님이 밭 임대료 올려서, 우리도 다 몇 십만 원씩 더 내게 생겼다!”고 했다. 알고 보니 우리 마을에서는 그 동안 그 반값의 임대료가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외지에 나가 사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임대료로 계약을 하려다가 온 동네 시끄럽게 만든 셈이 되었다. 그 동안 5-60대의 젊은 임대 농업인들의 부당한 담합(?)이 있었던 것. 매년 땅을 놀릴 수 없어 밭을 임대 주어야 하는 노인들은 몇 십만 원의 용돈이라도 써야 하는 처지인데 말도 못 꺼내고 온 것이다.

지난 14년 동안 세례 주고 성장시켜 도회지로 내보낸 교인이 40명이 넘는다. 이제는 바글대던 아이들도 없어 교회학교도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사그라져 가는 것을 마냥 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감에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에 자리 잡기’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나 자신 먼저 농사짓는 농민으로 변신하자,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농사를 제대로 배우고, 교우들의 생업을 함께 하는 목사가 되자. 그러고 보니 지금껏 ‘농촌에 있는 교회에 시무하는 목회자’였을 뿐 정작 ‘농촌을 목회하는 목회자’는 아니었다. 때늦은 깨달음에 변신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생각지 못한 일에 부딪친 것이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간 마을 임대농민들, “목사님을 나쁘다고 한 건 아니니 지금쯤은 아마 머쓱할 겁니다” 주문한 소석회를 내려주려 오신 이장님이 귀뜸해 주신다. 평당 연 1만 원의 소득이면 고소득 작물이다. 천 평이면 저쪽 밭 끝머리가 가물거릴 만큼 너른 밭이다. 이른 봄부터 서리 내릴 때까지 꼬박 밭고랑에 묻혀 살며 연 1천만 원 겨우 건지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고 모자랄수록 서로 협동하며 사는 길도 있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 ‘마을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접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목사이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마을이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자칭 비밀 공작원(?)이니까. 이미 반세기 이상 이곳에서 살아 온 토박이 주민들이 교회로 찾아오지는 않으니 내가 저들에게로 들어가려는 것이니 까. 인간을 구원한다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는가! 農